

다 숨 사랑

2011년 2월 25일



학교장 인사말씀

다숨 사랑

Vol. 7, No. 2 (제27호)

펴낸이: 교장 최미영

엮은이: 교사 임강주

이 번호 목차

학교장 인사말씀	1
다숨 설날 이야기	2
다숨 골든벨 이야기	3
다숨 학생들의 봄 이야기	4
다숨 역사 교실	5
우리들의 이야기	5
다숨 행사 및 학사 안내	6

최근에 본국 뉴스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만 역사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해는 언제입니까? 대한민국은 몇 년에 건국되었습니까?” 와 같은 단답형 질문에도 답을 못하는 고등학생들이 많아서 특별히 그런 학생들만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만도 7-8학년부터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4년 동안 적어도 2년 이상 미국 역사를 꼭 배우고 있으니 한국의 상황은 다소 심각해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학교에서는 재미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한국학교 교사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역사 문화 교재가 없어서 한국어 교육에 비하여 역사 문화 교육은 많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다숨 선생님도 3분이나 교재 편찬에 참가하여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에서 2010년 7월에 발행한 <한국을 찾아라> 를 2010년 가을학기부터 교재로 채택하여 매 주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들에게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왔습니다.

2011년 1월 말에 1학기를 마치고 학생들을 위한 역사 문화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는데 학생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여 선생님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답도 한 가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3가지 답을 쓰라고 해도 다 맞추어 버려서 여분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까지 다 내놓아야 했고 패자 부활전에는 모든 학생들이 답을 다 맞추어서 결국 3가지 문제를 연속으로 맞추어야 패자 부활을 허가할 정도였습

니다.

한국 뉴스의 인터뷰에서 물었던 단답형 문제는 우리 학생들도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매우 단순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북가주에서 제작된 역사 교재인 <한국을 찾아라>와 <한국을 알자>를 개발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점은 역사에 대한 단순 지식만을 가르치고 암기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 다. 좀 더 나아가서 문제 의식을 기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과거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올해로 우리 다숨이 개교 7주년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만 지난 7년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이 성장해 온 우리 다숨이 이제는 여러 면에서 더 도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만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역사 문화 시간을 통하여 문제 의식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한국의 고난 극복의 역사 이야기를 아직도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을 돕고 섬기는데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미한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절 바르고 친절하며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한사람 한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회와 한인 지역사회에 감사합니다. 함께 성장하며 서로 돕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희망찬 2011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1 다솜 설날 이야기

한국학교에서의 설날행사

김남석(백제반)

나의 설날 행사는 재미있었다. 우리는 여러가지 한국 전통게임을 했다. 설날 전통 음식인 떡국도 먹었다. 그리고 세배하는 법을 배우고 새뱃돈도 받았다.

노현아 (백제반)

다솜 한국학교에서 설날 파티를 했어요. 저는 연한 분홍색 저고리와 진홍색 치마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우리 백제반 친구들은 윷놀이를 제일 먼저 했어요. 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랑 같이 해본 적이 있어서 간단했어요. 그 다음에는 떡국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발해반 교실에서는 제기차기를 했어요. 긴 한복치마를 입고 있어서 제기를 차기가 어려웠어요. 사방치기도 재미있었어요. 만약 한복을 안 입었었다면 제일 잘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세배를 했어요. 그 전에 선생님께서 세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 설날 파티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놀이는 사방치기였고, 세뱃돈을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재원(백제반)

나는 설날이 좋았어요. 우선, 우리는 윷놀이를 했어요.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에, 떡국을 먹었어요. 진짜로 맛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Korean Hopscotch 를 했어요. 이것도 재미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세배를 했어요. 설날이 참 재미있었어요!

장선진(백제반)

지난주에 한국학교를 처음 시작했다. 마침 설날 행사를 했다. 거기에서는 다른 재미있었던 놀이도 많았지만, 나는 사방치기

가 제일 재미있었다. 사방치기는 hopscotch 와 거의 똑같다. 모양만 달랐다. Hopscotch는 십자가 모양으로, 길쭉하다. 사방치기는 네모모양에 대문 같기도 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한복 때문에 계속 걸려서 넘어졌다. 나는 2번까지 했는데, 한 친구는 7~8까지 했다. 나는 이 놀이를 하면서 한 발로 Bean bag 을 잡다가 넘어질 때가 제일 웃겼다. 이렇게 재미있는 사방치기 놀이를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도 알려 주고 함께 놀고 싶다.

임재인(백제반)

한국학교에서 설날 잔치를 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한 것은 사방치기였어요. 사방치기는 고조선반의 김영식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신라반 교실에서 했어요. 신라반 바닥에 사방치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조그마한 장난감을 말로 사용했어요. 원래는 돌을 쓰기도 한대요. 우리 반의 한 학생은 여섯까지 갔어요. 하지만, 다른 교실로 가야 하여서 오랫동안 놀지는 못했어요.

윤혁(백제반)

다솜 한국학교에서 설날 행사를 했습니다. 떡국이 맛있었습니다. 제기차기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다른 놀이도 재미있었습니다..

설날의 기억

원혁 (조선반)

설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요. 거기에서 아침에 떡만두국을 먹어요. 다 먹으면 세배를 해요. 저는 절을 하고 덕담을 들으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어요.



2011년 다솜 설 행사



덕담 나누기



사방치기



다솜 골든벨 이야기

노현우(발해반)

지난주에 했던 골든벨 대회는 아주 재미있었는데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이번 골든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골든벨 대회에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었습니다. 대회를 할 때는 조금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문제를 듣고 연습했던 내용을 잘 생각해서 답을 썼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풀었는데 연습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대회를 열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처음부터 정확한 대회의 규칙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 틀리면 게임에서 나가거나, 한 사람이 문제를 세 번까지 틀려도 게임을 할 수 있는 룰이 모든 참가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또 다른 제안은 다음 대회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한국학교의 친구들이 함께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회를 위해서 더 많이 책을 읽고 연습을 많이 해서 즐겁게 대회에 참가할 것이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요한(발해반)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골든벨에 참가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못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열심히 안 하면 골든벨을 잘 못하게 되지요. 한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예요.

송푸른(발해반)

제가 처음 골든벨을 알게 된 것은 한국 채널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많은 언니 오빠들이 골든벨을 치기 위해 문제 푸는 모습이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우리 한국 학교에서도 골든벨을 하게 되어서 좋았어요. 골든벨은 제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답을 쓸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문제를 풀면서도 제가 골든벨을 올릴 생각은 못했습니다. 한국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 있습니다.

양희선(발해반)

다솜 한국학교에서는 두 번째 골든벨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골든벨 대회를 위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문제들은 쉬웠는데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누가 1등 할까?" 저는 이번에 3등을 해서 기뻐요. 저는 다음 골든벨 대회에서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윤하나(발해반)

요번 골든벨은 참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는 저는 더 문장이 어려운 것, 쉬운 것이 섞여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장이 특이하고 답은 멀티플 초이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상은 잠바주스, 스타벅스, 핑크베리 기프트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골든벨은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에요.

이아린(발해반)

나는 골든벨을 할 때 일등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번처럼 나는 중간에 탈락했어요. 다음에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일등을 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내가 이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안 해서 잘 못한 것 같아요.

임경식(발해반)

수업시간에 골든벨을 준비하기 위해 친구들과 같이 했던 리뷰 타임이 많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골든벨이 끝난 후에 상을 더 많은 친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11년 다솜 역사문화 골든벨 대회

이게 정답인가요?

참 잘했어요!



다솜학생들의 봄 이야기



'봄'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신라반)

- ✎ 김영은 : 새싹, 달팽이, 나비, 하얀색, 분홍색 그리고, 싹이 나오
- ✎ 김주영 : 하얀색, 꽃, 발렌타인데이, 축구, 별
- ✎ 김민주 : 채소, 새, 하얀색, 꿀, 파란색
- ✎ 김윤아 : 영화, 하이킹, 피아노, 물고기 밥주기
- ✎ 박채빈 : 나무, 나비, 꽃, 달팽이, 햇님 그리고, 따뜻하다
- ✎ 이윤지 : 새, 소풍, 하이킹, 라스베가스, 수영, 보트타기
- ✎ 양희준 : 생일, 뉴욕, 보라색, 야구, 닥터수스 생일; 나는 봄이 좋습니다. 봄에는 좋아하는 축구도 할 수 있고, 내 생일도 봄에 있습니다.
- ✎ 이시운 : 꽃, 분홍, 나비, 달팽이, 나무; 봄에는 꽃이 피어요.
- ✎ 명세린 : 나무, 꽃, 산책, 소풍, 달팽이, 공원; 초록초록 싹이 나오. 따뜻한 햇살이 비쳐요. 꽃이 활짝 펴요.
- ✎ 정인하 : 달팽이, 나비, 3D 영화, 분홍, 태권도, 별, 나무; 나무가 제일 좋아요.
- ✎ 서준호 : 꽃, 영화, 발렌타인데이, 축구, 풋볼, 태권도, 개나리, 나비; 분홍 꽃이 피어요. 싹이 나오. 나비가 날다.
- ✎ 배정환 : 별, 파란색, 나비, 시계, 새싹, 개나리, 빨간색; 노란 개나리가 피다. 파란 새싹이 트다. 나비가 날다.
- ✎ 류수현 : 풀, 꽃, 나무, 아이스크림; 엄마와 바닷가에 가요.



봄이 하는 일- 김예린(고조선반)



봄이 오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고구려반)

- ✎ 노다익 : 봄이 오면 집에서 DS를 가지고 많이 놀고 싶고 한글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 ✎ 윤예은 : 봄이 오면 나는 오빠랑 엄마랑 할머니 집으로 가요. 한글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 ✎ 김규민 : 봄이 오면 한글학교에서 더 많이 놀고 싶고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 ✎ 이재호 : 봄이 오면 따뜻하고 많은 꽃들이 피어나요. 꽃들은 모두 분홍색이에요.
- ✎ 김진주 : 봄이 오면 한글학교에서 하루 종일 놀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 ✎ 최지현 : 봄이 오면 밖에서 놀고 싶어요. 풀은 초록색이고 공부는 안하고 쉬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 강주희 : 봄이 오면 강아지랑 밖에서 놀고 축구도 하고 하루종일 나비도 잡으러 다니고 싶어요. 한글학교는 재미있어요.
- ✎ 임수영 : 봄이 오면 한글학교에 노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숙제도 없고 운동장에서 많이 놀고 싶어요.
- ✎ 김공주 : 봄이 오면 선생님이 쉬는 시간을 많이 줘서 친구들과 잡기놀이를 하고 싶고 산에도 올라가서 놀고 싶어요.



곰돌이의 봄 연주회-박윤하(고조선반)



다솜역사교실

Chinese New Year 을 Lunar New Year 로 바꾸자

류정현(조선반)

중국을 제외한 지구에 202개 나라들 중 거의 모든 나라들이 1월1일을 기념한다는 것, 아셨나요? 그러면 왜 1월1일을 'Chinese New Year' 라고 불러야 할까요? 1월1일은 중국 말고도 여러 나라가 축하하고, 여러 세월 동안 국가적인 명절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hinese New Year'를 'Lunar New Year'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한국, 일본, 태국, 이란, 부탄. 이 나라들은 모두 1월1일을 오래전 부터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시아의 대표로 크고, 또 태음력이라는 날짜 주기가 중국에 영향을 받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만 이 설날을 기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Chinese New Year'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따져 틀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이나 전부터 설날을 국가적인 명절로 갖췄고 그것에 따른 여러 행사와 풍습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이미 삼국 시대에도 "선조님들께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한민족의 명절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명절"이라고 인식되면 설 문화를 만들어준 조상님들께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물론 1월1일을 'Chinese New Year'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쉽고 간편하게 외워집니다. 그러면 1월1일을 기념하는 많은 나라들과 한국의 고귀한 설 문화는 누가 알까요, 영원히 잊혀질까요? 그래서 저는 'Chinese New Year'를 'Lunar New Year'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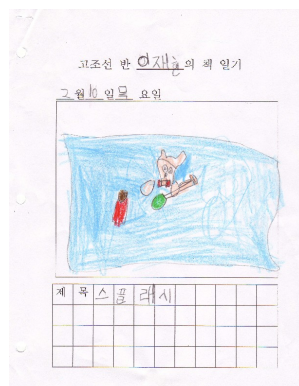
역사문화교육과정 Spring 2011

시수	날짜	단원	단원명	선생님
네번째	1/28/2011	9	한복, 바람의 옷	김영식
다섯번째	2/18/2011	4	한국 음식	원은경
여섯번째	4/15/2011	8	한국의 과학 문화재	황기현
일곱번째	5/20/2011	골 든 벨 대 회		

우리들의 이야기 (고조선반)



아빠를 사랑해요- 김예린(고조선반)



스플래시- 이재현(고조선반)



하나에서 열까지- 광유민(고조선반)



개미와 배짱이- 노유익(고조선반)



다솜 행사및 학사 안내

- ◆ 설날 행사: 2011년 2월 4일 금요일
- ◆ 개교 7주년 기념식: 2011년 3월 18일 금요일
- ◆ SATII Korean Pilot: 2011년3월 18일 금요일
- ◆ 봄교사 연수회: 2011년 3월 26일 토요일
- ◆ 부활절 휴강: 2011년 4월 22일 금요일
- ◆ 한국어 능력시험: 2011년4월 16일 토요일 (2월 23일까지 등록 완료)
- ◆ 북가주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2011년 5월 7일 토요일
- ◆ 종강식 및 특활반 발표회: 2011년 6월 3일 금요일
- ◆ 북가주 교사 집중연수회: 2011년 6월 11일
-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2011년 7월 14-16일, San Francisco, CA



다솜한국학교

Dasom Korean School
1494 California Circle
Milpitas, CA 95035

Phone: 408-934-3600

Fax: 408-934-1092

info@dasomks.org



교사회의 식사 봉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2월: 김상민, 김예린 학생 가정

3월: 양희선, 양희준, 최학준, 최지현, 송푸른 학생 가정

4월 봉사자 없음

5월 봉사자 없음

6월 봉사자 없음

*** 4월, 5월, 6월 에 저녁 봉사를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You see much
more of your
children once they
leave home.”***

Lucille Ball (1911-1989), U.S.
comedian. *The Last Word*, ed.
Carolyn Warner, Ch. 16 (1992).